

단군신화에 던지는 몇 가지 질문

林 在 海

<安東大學 民俗學科 敎授>

- | | |
|-------------------------|------------------------------|
| I. 단군신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IV. 환웅과 곰, 범의 관계는 무엇을 뜻하는가? |
| II. 왜 환웅신화가 아니고 단군신화인가? | V. 환웅, 곰, 범은 문화사의 무엇을 반영하는가? |
| III. 왜 하필 곰이며 여성인가? | VI. 왜 단군은 신과 동물 사이에서 태어났는가? |

I. 단군신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아직도 고조선의 사람들이다. 말을 바꾸면, 단군신화를 지어 전승하던 시대의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천 삼백 여년 전 단국시대의 삶과 사상을 이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단군의 사람세상 다스리려는 생각이나 고조선의 건국이념이 우리의 삶과 문화에 충만해서, 그러한 세상살이가 이 땅에 한시바빠 실현되길 갈망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한 생각이다. 이러한 소망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군신화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단군신화에 관한 인식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단군신화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관한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 신화를 보는 일반적인 관점들을 우선 훑어봐야 할 것이다.

신화에 대한 오랜 관심은 고대에 이미 일정한 시각을 갖추게 했다. 희랍의 철학자들은 신화를 합리적 철학적 진리, 또는 종교적 믿음으로 간주하는데 반해, 계몽기의 퀴변가들은 자연적 도덕적 진리를 나타내는 우의(allegory)로 보고 우화적 해석을 시도했다. 로마시대에 이르러, 줄리안(Julian) 황제와 철학자 설루스티우스(Sallustius)는 신화를 지혜있는 사람들만 아는 초월적인 진리와 신비를 간직한 신성한 진리로 보았고, 쾌락주의자이며 무신론자들인 데모크리투스(Democritus)와 루크레티우스(Lucretius)는 신화는 사제자나 통치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실을 기초로 조작해낸 것이라 하여, 역사적 사실을 가리는 신화는 말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원전 3세기 사람인 유헤메르스(Euhemerus)는 신화의 주인공을 모두 역사적 인물로 보고 신화를 순전히 역사적 사실로만 설명하려 들었다.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역사상 실재했던 통치자들이 신격화되는 것을 목격했던 시대이므로, 신이나 영웅에 관한 전통적 신화들이란 초자연적 신비를 드러내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유헤메르스의 이런 관점은 역사주의(Euhemerism)로 일컬어지면서 계속되었다.

결국 사실을 기준으로 신화를 보았을 때는 자연히 위와 같은 세 가지 관점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즉, 사실 이상의 초월성을 지닌 신성한 진리로 높이 보아질 수도 있고, 엉뚱한 목적을 위해 사실을 조작한 허구로 낮추어 보아질 수도 있으며, 또한 사실 그 자체로 담담하게 받아들여져 역사 이해를 위한 자료 정도로 보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 세 관점은 후대까지 이어지면서 거듭 주장된 탓으로 신화가 종교적 철학적 관점이나, 문학적 관점 및 역사학적 관점 안에서 계속 주목받게 되었다. 그 결과 철학자들은 신화 속에 갈무리되어 있는 우주와 인간의 숨은 의미를 분석하려 들고, 문학자들은 신화의 상징체계와 구조를 통해서 고대인의 세계관 및 문학적 원형을 탐구하려 들며, 역사학자들은 신화를 통해서 선사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재구하는 방증 자료로 삼게 되었다.

학파에 따른 신화해석의 방법도 다양하다. 근대적 신화해석의 기점을 마련한 자연신화학파는 신화를 자연현상의 의인화로 보고서, 언어학적 성과를 배경으로 어원을 추적, 신화가 자연현상의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가를 밝히려 했으며, 인류학파는 신화를 제의의 구술적 상관물, 즉 굿을 말로 한 것이라 하여 제의와 관련성 속에 신화를 해명하려고 했다. 정신분석학파의 프로이드는 초자아에 의해 강요되고 억압된 인간의 성적 본능, 즉 순수한 무의식의 표현을 설명하는 자료로 신화를 동원했다. 구조주의자인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는 신화를 언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구성단위로 분석하고 신화소(mytheme)를 추출하여 신화소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신화의 궁극적 의미를 찾아내고자 했다면, 기능주의적 방법을 체계화한 말리놉스키(Malinowski)는 주민들의 처지에서 신화를 조사하고 해석하면서, 원시인의 풍속과 사회구조를 합리화하고 설명하는 수단으로써 신화의 사회통제 기능을 주목했다.

이들 중 특정한 관점이나 이름 있는 방법 하나를 택해서 단군신화를 검토하면, 뭔가 풀리지 않던 의문이 확실하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가장 그럴듯한 것 하나를 골라잡는 관심을 뺏기기 쉬운데, 신화의 실상은 그러한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신화는 특정한 분과학문이나 학파의 관심 및 방법론과 일대 일의 대응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속성을 포괄하고 있는 총체적 통합적 문화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연구 경향은 단군신화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조차 제기하지 못한 채, 주어진 틀 속에서만 한정적인 해석을 하고 말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학계에 널리 유행하는 방법만을 들먹이다가 실제로 단군신화 자체가 안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은 놓치기 일쑤이다. 따라서 우선 단군신화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는데, 이리저리 기발한 착상을 떠올리고 좋다는 방법들만 두루 갖다 들이 대니 엉뚱한 방향에서 소비적인 논의만 이루어지고, 정작 풀어야 할 문제들은 해명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하면 구조주의의 중시조라 할 수 있는 레비스트로스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재치있는 학자들께서 단군신화를 구조적 방법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저마다 던졌다. 처음에는 민속학자나 인류학자는 결코 어떤 민족지를 발명해 내어서는 안 된다고 사양했지만, 그의 발표와 대담 과정에서 마침내 단군신화는 ‘하늘과 땅’,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대립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해석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러한 양극적인 대립의 쌍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 그러한 구조분석이 의미 부여에까지 진전되었다고 할지라도 구조분석 자체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육식대 초식이라고 하는 것은 범과 곰의 식성을 문제삼은 것이므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환웅과 단군의 식성은 제외되어 버렸다. 식성을 분석단위로 삼는다면, 신격인 환웅과 인격인 단군의 식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초식과 육식의 대립성을 두루 포괄하

고 수렴하는 단군의 ‘잡식성’과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않으면서 먹는 것으로부터 초탈해 있는 환웅의 ‘탈식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레비스트로스의 양분론적 대립구조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다. 하늘과 땅의 대립구조도 마찬가지이다. 하늘을 환웅이라 한다면 땅은 곰과 범, 단군을 두고 분석한 셈인데, 이렇게 파악하는 것의 한계는 곰과 범 및 단군을 같은 차원에서 땅으로 귀속시키는데 있다. 단군이 땅 위에서 존재하는 지상적 존재라면, 곰과 범은 땅속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래야 인간이 지상적 존재로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천지인(天地人)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한 요소로서 온전하게 해명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석의 여지도 많고 단군신화의 실상에 접근하는 분석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양분구조에 바탕을 둔 서구적 구조주의의 한계인 한편, 분석 대상을 문제의식 없이 방법론을 앞세워 분석하려는 데서 비롯된 한계이기도 하다. 일정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이원적 대립구조로 대상을 보면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방법론의 가리개가 이해에 일정한 편견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런 가리개 없이 대상을 토해서 알고 싶은 문제, 의문이 되는 내용을 먼저 제기하고 나서,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분석도구나, 모호한 부분을 밝게 볼 수 있는 특수한 가리개를 동원해야 온전한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방법으로 무장한 신화학자가 아니라, 단군신화를 전승하는 주체로서, 또는 단군의 예사 자손으로서 단군신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봄직하다. 이렇게 해서 제기된 의문을 다음과 같은 질문 형식으로 던져 본다.

첫째, 왜 회랍신화들처럼 신의 이름을 표방하여 ‘환웅신화’라 하지 않고 ‘단군신화’라 하는가?

둘째, 왜 곰과 범 가운데에서 하필 곰이 사람으로 변신하며, 그것도 남성이 아닌 여성인가?

셋째, 왜 단군은 환웅과 곰, 범 사이의 삼각관계 속에서 태어나는가?

넷째, 이러한 등장인물의 관계는 고대 문화사의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가?

다섯째, 왜 단군은 신과 동물 사이에서 태어나야 했는가?

여섯째, 단군신화와 경전의 신화는 무엇이 같고 다르기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우상승배라 하는가?

여기서 던져진 질문들은 진작부터 제기되었어야 할 것이지만, 남의 이론과 방법에 미혹되어서 늦어졌을 뿐이다. 특히 여섯째 질문은 지금 막 부닥뜨리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떠오른 것이다. 따라서 단군신화에 던지는 질문은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 현실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법으로 되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함없이 던져져야 할 일곱째 질문은 “단군신화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지니며 무슨 구실을 하는가?”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논의의 분량상 여섯째와 일곱째 질문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마지막 질문은 언제든지 한결같지만, 그 대답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답을 마련하는 것보다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질문은 해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화이트헤드(Whitehead)의 말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단군신화에 질문을 던질 때 이미 단군신화의 참뜻은 술술 풀려가고 있는 것이다.

II. 왜 환웅신화가 아니고 단군신화인가?

사실 단군신화의 주역은 단군이 아니라 환웅이다. 신화 속에 활동 상황이나 이야기 속에 차지하는 서술의 비중이 있어서도 단연 환웅의 역할과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단군은 그저 환웅의 이야기 말미에 약간 서술되어 있을 정도이다. 인물의 격에 있어서도 그렇다. 환웅은 천제인 환인의 아들로써 신격이지만, 단군은 인간의 모습으로 화한 환웅과 변신한 곰녀 사이에서 태어난 인격이다. ‘신화는 신의 이야기’라고 규정할 만큼 신 때를 반신반인(demigod)을 주인공으로 한다. 신화의 또 다른 정의들은 ‘원인론적(aetiological) 이야기’, 또는 ‘신성시되는 이야기’로 규정하는데, 앞의 세 규정 가운데 어느 것을 문제삼더라도 환웅이 단군보다 더 신화적 존재이다. 즉, 환웅은 신일 뿐 아니라, 단군탄생 및 고조선 건국의 보다 깊은 원인행위를 하며, 인격인 단군보다 더 신성시될 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회랍신화보다 신의 이름을 제쳐두고 사람의 이름을 신화의 이름으로 따온 것은 어디 있을까? 왜 환웅신화가 아니고 하필 단군신화인가 말이다. 단군신화의 이념이라고 하는 ‘홍익인간’도 단군이 품은 뜻이 아니라 환웅의 뜻이고 보면 더욱 그런 의문이 든다. 어디 이따위 의문뿐이겠는가만, 우선 초보적인 의문부터 풀어야 더 어려운 의문도 순조롭게 풀릴테니, 조급함을 가라앉히고 신화의 내용부터 보기로 한다. 단군신화의 가장 오랜 기록이면서 그 줄거리가 자세하기 기록된 「삼국유사」의 내용을 간추려 본다.

(가) 환인 천제는 아들 환웅이 사람세상을 탐내는 것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 보니 홍익인간의 이상을 펼 만 한 터이므로,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다스리게 했다.

(나) 환웅이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시(神市)라 이르고 환웅대왕이 되어, 바람, 비, 구름을 거느리고 무릇 사람의 일들을 맡아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다) 그때 곰과 범이 같은 굴에 살며 환웅에게 사람되기를 빌므로, 썩과 마늘을 먹으면서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고 일렀다. 범은 견디지 못해 실패했으나 곰은 3·7 일만에 여자가 되었다.

(라) 사람이 된 곰녀는 혼인해 주는 이가 없어 단수 아래에서 아이배기를 빌자, 이에 환웅이 잠시 변하여 혼인하여 아이를 배게 했다. 아이를 낳자 단군왕검이라 했다.

(마) 단군은 평양성에 도읍하고 조선이라 하였으며, 아사달로 도읍을 옮겨 1,500년간 다스렸다. 주(周)의 호왕의 기자를 조선에 봉하매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아사달에 돌아와 산신이 되니 수가 1,908세였다.

다섯 단락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단락 (마)만 단군과 고조선의 개국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면서도 단군신화인 것은 이를 단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우리 민족의 수용태도가 단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문헌에는 이 신화를 두고 ‘단군신화’로 제목 붙이지 않았다. 물론 환웅신화라고도 하지 않았다. 누가 언제부터 단군신화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런 논란 없이 단군신화로 명명하고 수용한 것은 민족적 공감대를 이를 만한 집단적 무의식이 깔려 있는 탓이겠다. 해모수신화가 아니고 ‘주몽신화’라고 하거나, 천마신화가 아니고 ‘박혁거세 신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치 때문이다. 인본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 겨레의 마음가짐이 단군신화로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 이야기 속에 갈무리된 민족의식의 숨김새를 보면 이러한 마음가짐이 한층 뚜렷하게 드러난다.

서두인 단락 (가)에서 보듯이, 환웅은 천신이면서도 늘 지상의 사람세상을 탐하였고, 천제 환인 역시 환웅으로 하여금 홍익인간의 성업을 지상에서 이루게 하고자 태백산으로 내려보낸 것이다.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천신을 숭상하도록 교화거나 하느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상에서 사람세상의 낙원을 이루고자 하강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세상은 하느님의 종으로서, 또는 하느님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한 하늘나라의 객체로서 존재하는 종속적인 땅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이 지상의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또는 천신이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펴리라 믿는 동경의 땅나라인 것이다. 이처럼 단군 이야기 속에서는 천신마저 탐할 정도로 사람세상은 동경의 세계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환웅은 마침내 지상으로 내려와 사람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모습으로까지 변신해서 사람 노릇을 했던 것이다.

단락 (다) 에는 사람세상을 동경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 천상적인 존재가 지상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굴에 살고 있는 곰과 범, 즉 땅속을 서식처로 삼고 있는 두 동물이 지상적 존재인 사람이 되고자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마침내 일정한 기간의 금기와 시련을 겪은 곰은 여성이 되어 사람으로서 사람세상을 살기에 이른다. 여기서 우리는 동물이나 천신이나 한결같이 사람세상에서 사람으로 살고자 동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관념은 신이나 동물 자체의 것은 아니다. 신이나 동물도 사람세상을 동경하리라 믿는 가운데, 스스로 사람됨을 기꺼워하면서 살았던 우리 겨레의 민족적 심성이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고 전승했던 것이다.

신이 사람으로 살고자 하강하는 이야기는 흔하지 않지만, 동물이 사람되고자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풍부하다. 천년 묵은 여우나 범, 지네 등이 곧잘 사람으로 변신하여 이야기에 등장하는데 즐거이는 대개 일정하다. 예사 동물과 달리 한정된 수명을 초월해야 둔갑술을 발휘할 수 있고, 사람과 상당 기간 동거를 해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신은 일정한 시련을 거치지 않고도 마음만 막으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동물은 이러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동물들은 사람되기를 서로 다투기 예사이다. 단군신화에서 범이 사람되지 못한 것은 시련을 이기지 못한 탓이다. 여기서 신격과 인격, 동물격의 품격 위상이 드러난다. 신격에서 인격으로 내려오는 데는 아무런 걸림이 없지만, 동물격에서 인격으로 오르는 데는 상당한 걸림이 있다. 그러면서도 높이 있는 신이나 낮게 있는 동물이 함께 사람세상을 동경하도록 한 것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와 존재를 인식하는 우리 겨레의 마음가짐이 단군신화 속에 숨김새로 자리잡고 있는 까닭이며, 이를 일컬어 단군신화라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 중심의 마음가짐이 나타남새로 구체화된 까닭이다.

III. 왜 하필 곰이며 여성인가?

이 질문은 처음 던져진 것이 아니므로 상당히 착실한 대답들이 마련된 바 있다. 이어령 교수는 곰과 범을 내적 참을성과 용맹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또는 곰이 성자를, 범은 영웅을 상징하는 동물로 파악했다. 그래서 범의 외적 투쟁이 아니라, 곰의 내적 투쟁을 택한 것은 “선비의 조용한 세계” 및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표방하는 민족의식의 반영으로 풀이했다. 한편 김열규 교수는 북반구의 곰 문화대에서 보이는 신앙과 제의 현상을

광범하게 동원하여 답을 구했다. 북반구 일대의 종족들 중에는 꿈을 저희 조상으로 섬기는가 하면 자신들과 동일시한다는 사실을 들어, 꿈을 택한 까닭을 밝히고 있다. 두발로 직립하는 꿈은 네 발로 기는 범과 달리 훨씬 사람다운데, 꿈은 겨울 동안 동굴생활을 하다가 봄이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므로, 죽음의 계절인 겨울이 가고 생명의 계절인 봄이 오는 자연의 리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꿈은 통과의례로 거듭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의 구체적 현신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꿈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레비스트로스는 발표와 대담에서, 먹이와 거주를 중심으로 꿈과 인간의 관련성을 들었다. 꿈은 사람처럼 날 것도 먹고 꿀, 호도, 광일 등을 먹으며, 사람처럼 집 속에서 겨울을 난다는 것이다. 꿈의 성격과 상징, 꿈의 형상과 형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먹이와 거주 등이 인간과 유사하므로 범을 버리고 꿈을 택했다고 풀이함으로써 김열규 교수와 비슷한 논의를 폈다.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으나 몇 가지 반문을 불러 일으킨다. 우선 꿈의 형상이나 형태 및 먹이와 거주 양식이 사람과 유사한 까닭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런 인식은 인류 보편적인 것으로서 민족신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별 의미가 없다. 다만 꿈은 범보다 여러모로 사람과 더 가깝다는 사실로써 사람과 꿈 사이를 이어주는 한갓 ‘줄긋기’일 따름이다. 그가 꿈의 형태만을 문제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류학자들이 타국문화를 보는 일반적인 한계이다. 우리가 사람의 모습과 형태에 더 가까운 꿈을 신화의 주역으로 택했다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알았다고 해서, 이러한 자연과학적 앎이 우리의 역사적인 삶을 이해하는데 무슨 도움을 주며, 현실적인 삶의 의미 부여와 미래의 삶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어떤 길잡이가 될 것인가를 따져본다면, 애써 밝힌 보람을 찾을 길이 없다.

꿈의 성격과 관련지워 ‘조용한 아침의 나라’, 또는 ‘선비의 조용한 세계의 표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답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방이 우리 민족성이나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족의식이 가장 침체되고 사대주의와 문약으로 흐른 조선조의 양반 선비층의 생각을 한정적으로 반영했다면 납득될 수 있지만, 적어도 단군신화를 두고 일컫는 것이라면 13세기의 고려 이전의 민족의식을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단군신화의 시대인 고조선은 부족연맹체의 활발한 정복 활동 끝에 비로소 이룩되었으며,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그 영역은 만주를 넘어서 요동, 요서 지방에까지 미쳐 있었다. 같은 강역(疆域)에서 나라를 일으킨 고구려는 호전성이 강하고 정복적인 기마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다음의 고려는 그러한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하여 옛 국토를 회복하려는 북진정책을 펴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단군신화를 조선조의 건국신화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단군신화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나 선비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선조의 사대부나 할 풀이라 하겠다.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답은 새로운 인식에 의할 때 한층 적절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꿈에 대한 인식도 인문과학적인 쪽으로 그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꿈은 우리 겨레에게 미련스런 동물로, 점은 영민한 동물로 인식되어 있다. “미련하기 꿈같다”는 옛말이 곧잘 쓰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미련스럽다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어리석게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리는 경우를 두고 부정적으로 일컬을 때 쓰기도 하지만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즐기차게 밀어붙이는 끈기를 두고 긍정적으로 일컬을 때 쓰기도 한다. 단군신화의 꿈은 뒤쪽 뜻으로 보아야 할 ‘미련스런 꿈’이다. 참기 어려운 고통을 쓸데없이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람의 길을 포기한 영민한 범의 요령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고자 끈질기게 견디는 꿈의 근성이야말로 당시의 우리 민족에게 요구되는 가치관이었다. 성읍국가들이 군웅할거하던 때에 이를 통일하여 나라를 세운 고조선인파, 계속되는 중국의 침략에 맞서면서 마침내 한반도의 중국세력을 몰아내고 남만주 일대까지 강역을 넓혔던 고구려인, 그리고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북진정책을 펴면서도 몽고족의 침입으로 갖은 수난을 겪었던 고려인들에게 절실한 세계관의 하나는 스스로 욕망을 자제하고 참고 견디는 가운데 비약적인 성취를 이룬 꿈녀식 미련스러움이라 하겠다. 꿈을 신화의 주역으로 택한 이유가 여기서 찾아진다. 눈앞의 수월함만 겨냥해서 요령과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려드는 요즘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꿈녀의 비약적 성취는 일정한 길잡이 노릇을 할 것이다.

꿈이 선택된 까닭은 그의 긍정적 근성에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여성이 되었는 가하는 의문은 아직도 남아 있다. 환웅이 남성이니까 꿈은 당연히 여성이어야 한다면 더 이상 말붙일 여지가 없다. 이 논리대로라면 꿈녀는 처음부터 암꿈이어야 한다. 그러나 성이 문제된 적이 없다. 특히 성격이 다른 존재로 변신할 때에는 본디 성이 문제되지 않는다. 신이 인간으로 하강할 때는 필요에 따라 뜻대로 현신할 수 있다. 부처가 여인으로 현신한 경우도 흔하다. 환웅이 남성으로 잠시 변하여 꿈녀에게 단군을 잉태시킨 것은 꿈녀가 원해서였다. 오히려 꿈이 여성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환웅은 남성으로 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꿈을 여성으로 비약하게 한 것은 별도의 숨은 뜻이 있다. 이 문제는 꿈을 택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꿈의 미련스러움은 두 갈래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부정적, 긍정적 미련스러움은 각기 남성적 미련스러움과 여성적 미련스러움으로 일컬을 만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미련스러움이 남성적으로 발휘되는 경우는 터무니없는 아집 때문에 남의 합리성을 꺾게 되는 ‘횡포’로 나타나지만, 여성적으로 발휘되는 경우는 내적인 고난의 극복과 인내로서 자기 비약의 성취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적 미련스러움은 남과 싸워서 이기고야 말겠다는 외강의 관념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내강의 의지로서, 신화 속에서는 꿈의 비약적 성취로 나타난 것이다. 꿈을 사람으로 비약시켜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는 원동력이 바로 여성적 미련스러움이므로 꿈은 마땅히 여성으로 변신되어야 했던 것이다.

또한 환웅이 천왕으로 불리듯이 하늘을 상징하고 있다면 꿈을 비롯한 동물들은 땅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레비스트로스도 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은 곧 남성과 여성의 상징이기 하다. 이러한 상징적 인식은 동서고금에 거의 일치되고 있는 것이다. 엘리어드(Eliade)의 보고에 의하면, 남녀의 혼례는 하늘과 땅의 결합인 성혼(hierogamy)을 재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우파니사드 Upanisad」에는 혼례식 때 남편이 아내를 두고 “나는 하늘 당신은 땅”이라고 말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베다 Veda」 경전에도 신랑 신부를 하늘과 땅에 비유한 구절이 있다. 그러므로 땅을 상징하는 꿈은 마땅히 여성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늘을 상징하는 천왕 환웅과 대응되는 짝을 이루며 단군은 하늘과 땅을 합일시켜주는 인왕으로서 왕검이 되는 것이다.

단군신화는 단군을 신성한 건국시조로 서술하는 구실과 당대의 사회적 질서를 합리화시키는 규범적 구실도 한다. 따라서 신화의 내용은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규정하는 모범이다. 단군신화에 나타난 가족체계도 마찬가지이다. 부계사회에서는 모계보다 부계의 혈통을 강조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꿈을 남성으로 할 수 없다. 동물의 혈통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신인 환웅으로부터 부계의 신성한 혈통과 이념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꿈은 여성이어야 한다. 부계가 혈통과 권능을 담보한다면, 모계는 역량과 재

능을 담보한다. 흔히 “재주는 외탁한다”고 하는 것도 인간의 재능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계라는 관념 때문이다. 따라서 모계로부터 성취의지의 실현을 위해 끈기있게 버티는 근성을 계승하기 위해서도 꿈은 여성이어야 한다.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천신의 초월적 권능만으로 불가능하다. 꿈녀와 같은 미련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군은 부계의 혈통과 모계의 비약적 성취의지를 아울러 계승한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탄생하게 되며, 이로써 단군신화는 제도를 정당화시키는 사회규범적 기능과 건국 시조에 권능과 역량을 부여하는 신성성의 기능을 함께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IV. 환웅과 꿈, 범의 관계는 무엇인가?

단군신화에 전체적인 흐름은 환웅, 꿈, 호랑이의 삼자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삼자 관계이전에 그 원인적 행위를 하는 환인이 있고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등장하는 단군이 있긴 하지만, 이야기의 전개과정에서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은 역시 이들 삼자의 관계이다. 따라서 왜 이들 삼자 관계 속에서 단군은 잉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당연한 의문으로 떠오를 만하다.

신화의 본질적인 성격 중의 하나가 본풀이의 형식과 기능이다. 사람들이 족보를 밝히듯이 신의 근본 내력을 자세하게 밝혀 기록함으로써 권능있는 신격으로서 신성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 신화에서 본풀이 성격이다. 본풀이에 의해서 시조왕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왕권의 위엄과 권위를 높여주며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단군신화 역시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의 신성한 출생과 계보를 밝힘으로써 이러한 기능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그 과정을 복잡한 삼각관계로 서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환인의 뜻을 입어 세상에 내려온 환웅이 인간으로 변신한 꿈녀와 혼인해서 단군을 낳았다는 서술이 본풀이로서 더 체계적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를 애써 등장시켜 삼각관계를 이루다가 호랑이를 실패하도록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어느 정도의 해답은 이미 앞의 질문에서 끌어낸 바 있다. 즉, 남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는 영민한 호랑이는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므로 궁극적인 성취는 이를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미련스레 참고 견디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비약적인 성취를 이루는 꿈녀식 삶의 철학을 상대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앞에서 얻어낸 답에 만족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꿈과 호랑이의 상대적인 관계만 드러내기 때문이다. 양자는 더불어 살면서 환웅과도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삼자간의 관계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시적인 관계부터 살펴되 논의의 진전을 위해 기존의 분석에서 출발하기로 한다.

이미 살핀 바 있듯이, 레비스트로스는 그의 구조적 분석방법에 입각해서 초식성과 육식성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는 곧 꿈의 호랑이를 식성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그의 탁월한 분석력을 인정하더라도 여기서 머물러서는 제기한 의문의 답을 마련할 수 없다. 구조주의라는 것이 대상을 대립적으로 갈라놓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원적인 대립구조만 문제삼아도 궁극적인 해명에 이르는 어렵다. 일찍이 글쓴이는 “구조는 일정한 의미를 지닌 상호관계의 체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여기서 상호관계는 이원적인 대립관계만 한정하지 않고 그것이 유기체로 조직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그리고 상호관계가 체계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거나, 또는 의미 부여가 불가능할 때는 구조적 분석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초식성과 육식성이라는 이원적

분석 자체만으로는 구조적 분석이라 할 수 없다. 식성에 의해 분석한 이러한 대립구조가 어떠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해석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 분석부터 다시 해야 한다.

환웅은 천신이다. 신은 초월적인 존재이므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무엇이든지 이를 수 있다. 물론 배고픔과 죽음까지도 신에게 아무런 제약을 주지 못한다.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먹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존재이다. 그러나 곰과 호랑이는 사정이 다르다. 무엇을 먹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 무엇을 먹되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을 수도 없다. 일정한 제약이 있다. 호랑이가 날고기를 주로 먹는 육식동물이라면, 곰은 푸성귀와 열매를 주로 먹는 초식동물이다. 그러므로 호랑이는 곰과 달리 썩과 마늘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없다. 호랑이가 실패하고 곰은 성공할 수 있는 소이연이 먹이에서부터 주어져 있었던 것이다. 사람의 식성은 육식과 초식을 겸하는 잡식이다.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 호랑이는 초식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곰은 어느 정도 육식을 하므로, 곰과 사람은 먹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곰이 썩과 마늘을 먹으며 마침내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식성에 따라 분석해 보면, 우선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으로 가를 수 있다. 먹는 것은 다시 아무 것이든 먹는 것과 가려서 먹는 것으로, 먹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먹지 않는 것과 가려서 먹는 것으로, 먹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먹지 않는 것과 가려서 먹지 않는 것으로 갈라진다. 앞쪽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라면, 뒤쪽은 아무 것도 먹지 않을 수 있는 신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다. 그러므로 가려서 먹는 것은 곧 가려서 먹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분석 방향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이다. 결국 식성에 따른 분석은 아무 것도 먹지 않는 탈식성, 가려서 먹는 편식성, 무엇이든 먹는 잡식성으로 갈라진다. 분석의 세 범주는 존재의 위상과 일정한 관련을 지닌다. 즉 ‘탈식성 : 편식성’은 ‘신 : 동물 : 인간’을 뜻한다. 이른바 초식과 육식으로 나눈 것은 가려서 먹는 동물의 편식만을 이원적으로 분석한 셈이니, 이를 드러내서 신화의 주인공들을 구체화시키면, ‘환웅 : 범 : 곰 : 단군’은 ‘탈식성 : 육식성 : 초식성 : 잡식성’으로 나타난다. 이 분석은 식성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존재를 범주화할 수 있는 포괄적 체계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관계를 자세히 드러내 보면 다음과 같다.

식성 먹이류	탈식성	육식성	초식성	잡식성
동물성	-	+	-	+
식물성	-	-	+	+
	(환웅)	(범)	(곰)	(단군)

먹는 경우는 +로, 먹지 않는 경우는 -로 나타났다. 신격인 환웅은 먹는 것에서 완전히 초탈해 있는 반면에, 동물격인 범이나 곰은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먹어서 안 되는 것과 먹어야 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기 육식성과 초식성을 대표한다. 한편 인격인 단군은 동물과 식물을 가리지 않고 두루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먹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체계는 먹이에 의한 존재의 범주와 함께, 품격 위상을 온전하게 설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먹이체계 속에서 호랑이는 육식 동물로서 독자적인 위상을 이르고 있으므로, 호랑이가 빠져서는 재미가 썩 적게 된다. 호랑이가 곰과 더불어 편식하는 동물격이 되 육식동물이므로 별도의 의미를 지닌

다. 호랑이와 곰이 각기 육식과 초식을 하는 동물로 등장하므로, 이를 함께 먹는 인간으로서의 단군이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아무 것도 먹지 않아도 상관없는 시도 대단한 존재이지만, 무엇에 구애됨이 없이 이것 저것 즐겨 먹을 수 있는 인간도 대단한 존재이다. 환웅은 탈식으로써, 육식과 초식의 편식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렸지만, 단군은 잡식으로써, 초식과 육식의 대립적인 편식들을 함께 수렴해서 통합한 셈이다. 이러한 먹이 관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통해 사람됨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호랑이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를 다시 추론하여 간명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격	동물격	인격
--	::	+-
탈식	편식	잡식

신격과 인격은 먹는 것에 관해 일정한 제약이 있는 동물격과 구별되면서 그들 상호간에도 구분이 따른다. 신격과 인격은 먹는 것이 함께 자유롭되, 그 정도가 다르다. 신격은 먹는 것에 전혀 구애됨이 없는 동시에 먹는 즐거움도 없다. 그러나 인격은 무언가 먹어야 하는 제약이 따르나, 아무 것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로움과 먹는 즐거움을 지니고 있다. 신격은 동물이 지닌 식성의 제약을 소극적, 부정적인 방향에서 해결했다면, 인격은 이를 적극적,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결한 셈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단군신화의 인본주의 세계관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다른 설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부처가 되어도”라는 설화가 좋은 예증이 되겠다. 두 노인이 부처가 되고자 깊은 산 속에서 각기 수도를 하는데, 한 노인은 밤중에 찾아온 여성을 부정하다 하여 내쫓았는데, 다른 노인은 여성을 맞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녀의 해산까지 도와주어서 마침내 부처가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사실을 안 앞의 노인은 간밤의 행위를 후회하며 부처가 된 노인을 무척 부러워했으나, 마침내 부처가 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하산해서 인간적인 삶의 길을 택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부처가 된 친구를 보니, 먹는 것에 초탈한 상태라 아무리 맛난 음식을 대접해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즐길 수 있는 좋고 나쁨과 감정의 희로애락을 느낄 줄 알아야 사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 노인은 수도의 길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설화가 사람답게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듯이, 단군신화도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V. 환웅, 곰, 범은 문화사에 무엇을 반영하는가?

우리는 지금껏 단군신화를 두고 먹는 문제에만 너무 집착한 것 같다. 그러나 먹는 문제는 생활양식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렵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육식을 한다면 채취생활이나 농경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초식도 한다. 동물을 수렵하는 사람들은 죽은 동물의 복수를 막고 온전한 수렵생활을 위해 동물의 정령을 숭배하기 마련이며, 곡물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때맞춰 비를 내리는 하늘신을 섬기기 마련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주생업은 식생활을 결정하고 신앙의 대상도 결정한다.

신화를 원시종교의 반영으로 보는 제의학파의 견해를 따르면, 단군신화는 곰과 호랑

이가 등장하므로 토렘신앙을 가졌던 집단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한다. 토렘신앙은 석기 시대를 중심으로 널리 행해지던 것인데, 단군조선은 이미 청동기 문화를 누렸다. 토렘신앙을 가진 집단은 수렵생활을 주로 한데 비해, 단군조선은 초기 농경생활을 한 사회였다. 그러면 단군신화의 곰과 호랑이를 토렘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겠다. 그러나 신화는 그 시대 상황의 즉각적인 반영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이전 시대의 문화도 반영한다. 따라서 곰과 호랑이는 토렘신앙의 반영일 수 있다. 그러면 환웅과 단군은 무엇의 반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단군신화를 특정시대 문화의 반영으로 묶어둘 수 없다. 자연히 통시적인 문화의 전개과정을 넉넉하게 살펴 필요가 있게 된다.

곰은 곰을 종족의 표상으로 삼아 신앙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곰 토렘족을 상징한다면, 호랑이는 범 토렘족을 상징하고, 환웅은 하늘의 신을 섬기며 떠받드는 천신족(天神族)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곰 토렘족이나 범 토렘족에 비해 하늘신을 섬기는 천신족은 생활양식이나 세계관이 있어서 상당히 앞선 종족일 수 있다. 천신족은 수렵생활을 청산하고 농경생활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여 모듬살이를 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떠돌아 다니며 수렵생활을 하는 종족들과 달리 천신을 섬기게 된 것이다. 즉, 농경의 풍요는 우순풍조(雨順風調)를 관장하는 천신의 조화에 달려 있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군신화의 단락(나)에 이러한 사실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환웅이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터를 잡고 신시라 일컬으며 바람, 비, 구름을 거느리고 곡식, 생명 등 무릇 삼백 예순 일을 맡아서 다스렸다는 대목은 바로 천신족의 정착생활과 농경생활 및 천신숭배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함축해 주는 것이다.

육식을 주로 하는 범 토렘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없다. 유목생활을 해야만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초식을 주로 하는 곰 토렘족은 아직 수렵생활을 하지만 열매와 풀뿌리, 풀잎 등을 식용으로 삼는 채취생활도 겸했다. 수렵생활과 농경생활, 유목생활과 정착생활의 중간단계에 속해 있는 종족인 셈이다. 범 토렘족이 구석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곰 토렘족은 신석기의 수준에, 천신족은 청동기 수준으로 문화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정한 지역 안에 신앙과 문화적 수준이 다른 세 종족이 거주하게 되면, 대립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삼자간의 대립은 어느 한쪽이 따돌림받는 상태에서 다른 두 쪽이 결합하기 쉽다. 문화적으로 앞서고 세력이 큰 집단이 있는 경우, 다른 두 집단은 다투어 이 우세집단과 일정한 유대를 맺음으로써 자기 집단의 열세를 면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환웅으로 상징되는 천신족이 가장 우세 집단이다. 그러므로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가 사람이 되기를 빌었던 것이다. 사람으로 변신한 다음에 곰녀는 다시 환웅과 혼인하고자 해서 단군을 낳고 단군은 고조선을 세웠다. 이 사실에서, 앞선 문화를 누리는 천신족을 두고 곰 토렘족과 범 토렘족이 다투어 협력관계를 맺고 같은 수준의 문화를 누리고자 했으나, 이미 천신족의 문화에 근접해 있는 곰 토렘족만 뜻을 이루고 범 토렘족은 두 세력이 밀려 떠나 버리거나, 종족으로서의 문화적 개성을 상실한 채 두 세력에 흡수 통합되어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세 집단의 균형을 깨지고 우세 집단에 흡수 통합되어 보다 큰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던 기반도 여기서 마련된 것이다.

천신족과 곰 토렘족의 결합은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문화적인 동맹에 의한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합은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처음은 천신족과 같은 생활양식을 익혀서 문화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이며, 다음은 혼인을 통해서 혈연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이었다.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가 사람되기를 빌고, 이에 환웅이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첫째 단계에 해당된다. 쑥과 마늘을 먹으며 동굴 속에서 3.7일을 보내게 하는 것은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는 천신족의 생활양식을 익히게 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생활이 가능한가를 시험해 보는 과정이다. 쑥과 마늘을 먹게 하는 것은 육식생활에서 초식 또는 잡식으로 식생활을 바꾸어 농경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그리고 일정기간 동굴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머물러 살 수 있는 역량을 습득시키거나 가늠하는 장치인 것이다. 자연히 떠돌아다니며 수렵생활을 하고 육식만 하던 범 토렘족은 이러한 생활에 쉽게 익숙해질 수 없으니 증도에서 포기하게 되고, 곰 토렘족만 성취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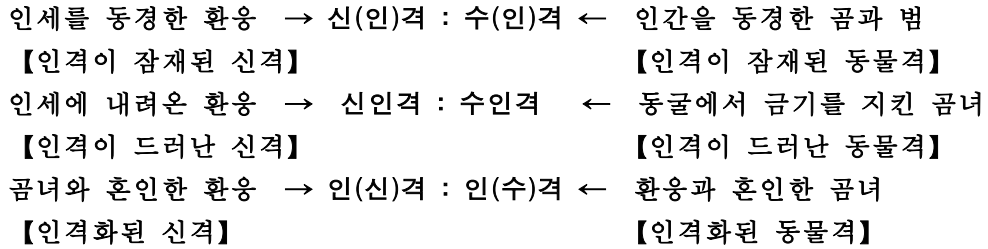
천신족의 생업기술과 문화적 양식을 습득한 곰 토렘족은 마침내 천신족과 혈맹을 맺고자 한다. 환웅을 찾아가 아이배기를 빈다는 대목이 이를 상징한다. 천신족이 이에 응함으로써 두 종족간에 족외혼이 이루어지고 혈맹에 의한 유대가 완전한 통합으로 발전하게 된다. 두 종족이 하나가 되어 일정한 지역에 정착을 하고 농경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넓은 땅이 필요하고, 이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규범이 있어야 한다. 이 때의 통치자는 두 종족의 지지를 고루 받으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가능하다.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우고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종족의 혈통과 문화를 함께 계승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규범 역할을 했다. 넓은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토를 가진 나라가 있어야 한다. 고조선은 세우고 영토를 넓혀간 것은 정착할 땅과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로써 종족의 연맹체로서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농경사회에 온전하게 진입함으로써 청동기문화를 꽃피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므로 환웅, 곰, 호랑이의 관계가 공식적으로는 식성의 체계속에서 사라됨을 긍정하고 그 존재의 위상을 가치 있게 드러내 준다면, 통시적으로는 고조선의 성립 배경을 문화사적 전개과정에 따라 구체화해 주는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VI. 왜 단군은 신과 동물 사이에서 태어났는가?

단군신화의 등장인물을 식성이나 신앙의 반영물로 보아 그 관계를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과 해석은 이를테면 호랑이가 육식성과 범 토렘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등장인물이 무엇을 방영이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확실하게 따져보며, 또 하나의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왜 하필 단군은 신격인 환웅과 동물인 곰녀 사이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것은 인격의 품격 위상을 결정해 주는 또 다른 장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군신화에는 품격이 서로 다른 세 가지 격이 출현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환인이나 환웅은 천상계의 존재이며, 곰과 호랑이는 지하계의 존재이다. 천상계의 신격이 사람 세상을 동경하여 지상으로 내려오고, 지하계의 존재인 동물격 또한 사람 세상을 동경하여 지상으로 올라온다. 이러한 두 존재의 만남이 지상적인 존재인 단군을 잉태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등장인물의 서식처와 됃됨이의 격이 일정한 체계를 이루면서 사라됨을 규정해 주는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신격인 환웅이 사람 세상을 동경해서 하늘세계로부터 지상으로 하강했다고 하는 것은 신격 속에 인격이 잠재되어 있던 인격이 어느 정도 표출되면서 ‘신인격(神人格)’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하계인 동굴 속에서 살던 동물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동물격 속에서 인격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썩과 마늘을 먹으며 사람이 되려고 금기생활에 들어감으로써 인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 ‘인수격(人獸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환웅과 곰이 제각기 사람세상에 대한 동경의 뜻을 이룬다. 그 결과 곰은 마침내 수성(獸性)이 잠재된 인격으로 비약, ‘인수격(人獸格)’인 곰녀가 되고, 이에 환웅도 신성이 잠재된 인격으로 홀연히 변신 ‘인신격(人神格)’이 되어, 곰녀와 혼인함으로써, 온전한 인격인 단군을 낳기에 이른다. 이러한 관계를 체계화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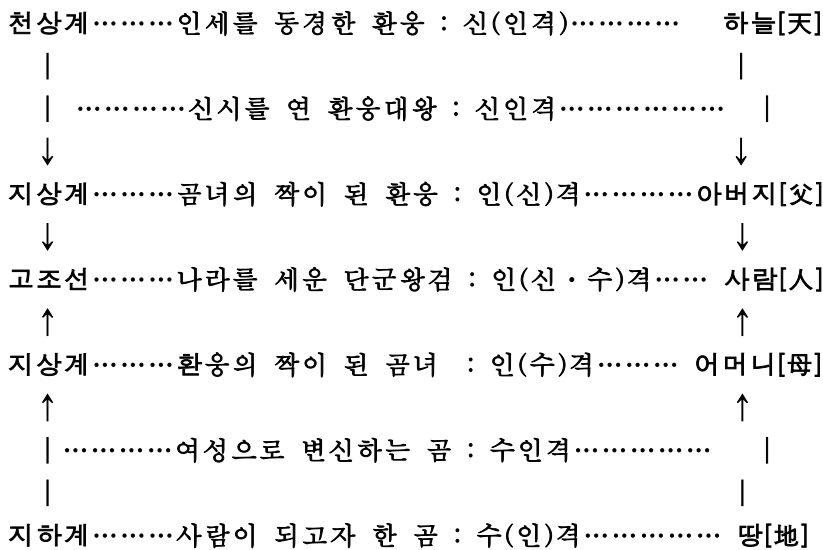


\ 인(신·수)격 /

혼인에 의해 사람으로 태어난 단군

【신격과 수격이 함께 잠재된 온전한 인격】

천상계의 ‘신(인)격’인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세의 왕노릇을 하면서 ‘신인’노릇을 하다가, 곰녀를 맞아 ‘인(신)격’으로 화하여 혼인을 한다. 이와 상대적으로 지하계의 ‘수(인)격’인 곰은 사람이 되고자 썩과 마늘을 먹으며 금기를 지켜 ‘수인’ 곰녀가 된 다음, 환웅을 맞아 혼인함으로써 결국 ‘인(수)격’을 성취하는 셈이다. 단군은 이러한 환웅과 곰녀의 혼인에 의해 출생한다. 따라서 단군은 ‘인(신)격’과 ‘인(수)격’의 결합에 의해 태어남으로써, 가장 온전한 ‘인(신·수)격’에 이른다. 이러한 체계는 사람됨의 품격 위상을 나타내면서 인간이 지닌 인성의 특징을 상징해 준다. 공간적인 체계로 도식화하면 단군의 위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위의 체계에 의해, 이제 단군이 신과 동물 사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까닭의 단서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단군은 온전한 인격이면서 통치자인 왕, 즉 사람세상의 인왕(人王)이다. 신격인 환웅과 동물격인 곰이 함께 동경하던 사람세상의 왕이니 가장 이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장 온전한 사람됨을 갖추어야 한다. 단군은 이러한 자격을 갖춘 인물로 관념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왕으로서의 통치력이 먹혀들게 되고, 단군신화가 신화로서의 규범적 구실을 온전히 할 수 있다. 단군신화에서 드러난 단군의 사람됨이 바로 그러한 가치 규범이며 가장 바람직한 사람됨의 자질이다.

가장 사람다운 사람은 신이나 동물과 상대되는 인물이면서, 어느 정도는 신과 동물의 성격을 지닌 존재이다. 신처럼 사람으로서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사람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하며, 남녀가 더불어 혼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처럼 이런 욕망에만 집착해 있어서도 역시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질서와 윤리에 맞게 조절 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과 신과 대립적인 관계에서 존재하되, 한편으로는 양자의 성격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가장 조화로운 존재이다. 단군은 신과 동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므로, 신과 동물에 대립되는 존재이며, 한편으로는 신성과 수성을 내재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단군신화는 단군의 출생과정을 통해서 사람됨의 모범을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사람은 천상계와 지하계, 즉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천지인(天地人)의 세계관과 함께 천부지모(天父地母)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앞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즉, 꿈은 왜 하필 여성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단군의 사람됨은 이상적인 인간관이나 과거의 세계관만을 한정해서 형상화해주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갈무리해 두고 있다. 그것은 사람됨의 자질을 통해 사람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상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수성과 신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존재이므로, 그만그만한 삶을 살다가 보면 예사 사람으로 머물기도 하지만, 애쓰고 노력하여 큰 성취를 일삼으면 동물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격하될 수도 있다. ‘미꾸라지 용됐다’고 하는 말은 사람의 비약적인 성취를 나타내면,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말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타락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군신화는 사람됨의 양면성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비약할 수 있는 신성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한편, 타락하여, 인간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수성의 한계를 경계해 주는 구실도 아울러 한다.

만일 단군신화와 동물격이 등장하지 않은 채 신성 현현으로 단군의 존재가 떠오른다면, 이와 같은 사람됨의 본질과 삶의 깊은 이치를 깨우쳐 주지 못하고 말 것이다. 단군이 1908세를 살다가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단군이 오랜 왕업을 이루면서 인간의 수명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산신으로 비약하는 큰 성취를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단군이야말로 사람됨의 본보기로서 사람 속에 잠재해 있는 신성과 수성을 함께 의식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가능성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수성을 자제하고 조절하는 가운데 신성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길이다.